

찾아가는 사회적경제-마령고등학교

진안신문 | 승인 2021.05.10 10:08

한명재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소장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시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을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 서비스를 진행했다. 첫 시도로 마령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매주 목요일 2시간씩 3회 강의를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라는 조금은 난해한 경제강의를 학생들은 재치있는 질문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보며 내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았다.

첫 번째 강의는 사회적경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개념과 역사적 발생 배경을 이야기하며 '인구과소화 지역인 진안에서 사회적경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물론 상상하듯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그럼 여러분은 진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의 중 보여준 '위캔두댓(We can do that)'의 짧은 4편의 영상을 통해 키워드를 찾아가는 방식에서는 재치있는 답변들이 이어졌다. 갈등 해소의 방식과 다름을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인들이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이들이 일궈 낸 기업 '론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마루디자인회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숙연해했다. 그때 학생들의 눈빛은 장난기 하나없이 진지하고 무슨 생각인가 빠져든 듯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해외사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협동조합을 소개했다. 사회적경제의 단골 메뉴인 몬드라곤과 트랜티노협동조합을 이야기했다. 몬드라곤의 소개에서 협동조합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얘기했을 때는 다소 생소한 반응이었다. 트랜티노와 몬드라곤이 산악지역의 척박한 곳에서 탄생했다는 것, 몬드라곤은 히틀러의 공습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일궈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안도 이와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누며 차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지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작은 석유곤로회사 '울고-ULGOR'를 통해 오늘날 세계적 기업이 되었음을 소개했을 때는 대단하다는 눈빛이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는 캐나다와 한국의 사례, 그리고 진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나누었는데 특별히 캐나다 퀘벡의 '샹플랭거리'를 소개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무척 흥미로워했다. 샹플랭거리는 협동조합이 모여 이루어진 거리로 최초 프랑스인들이 캐나다에 상륙한 항구의 이름이며, 당시 성행했던 모피사업의 몰락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역사성을 회복·유지하고자 협동조합으로 꾸민 관광화 협동조합거리이다. 진안에도 이런 협동조합 거리가 있다면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특한 물건을 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상상해봤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의 학교협동조합은 도시의 학교협동조합 예처럼 매점협동조합이 아닌 진안에 걸맞는, 나아가 농촌학교에 적합한 학교협동조합을 이야기했다. 무엇이 농촌학교협동조합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답하기 어렵지만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학교협동조합의 꿈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다.

마령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3주간의 사회적경제교육은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교육은 있었으나 다소 생소하지만 상생과 협동, 신뢰 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교육이 마령고등학교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혁신고' 였다는 것,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교과 외의 학과를 편성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3주간의 강의에서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의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손수 내린 원두커피를 가져다 주었는데 마치 전문가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말 맛있는 커피였다. 그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간153의 김현두 청년사장에게 커피바리스터 교육을 받아 선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커피향과 잘 어울리게 학생들의 발랄함이 배어나는 독특한 학교 휴게실은 인상적이었다. 휴식시간에 학생들이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발랄하게 웃는 모습에서 나의 학창시절을 회상해보니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이토록 가까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밝고 명랑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시험과 권위로 찌든 '고달픈' 기억이 아닌 격의 없이 소통하는 '즐거운' 학창시절을 상상해봤다.

금번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은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몇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로 사회적경제교육을 초등학교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교재를 개발해 어린이에게 체험을 통해 협동을 알게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협동의 경제를 통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어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해 고민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름(또는 겨울) 캠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캠프를 통해 지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하고,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 협동의 경제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 자원봉사자와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학교에서 경쟁의 경제가 아닌 상생과 호혜의 경제를 일상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특별히 농촌학교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은 교육에서 머무름이 아닌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역의 소중함을 통해 지역을 세계화하는 고민을 지원센터에 남겨주었다. 지역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지키려면 지역민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줄고 찾아오는 진안,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 수업에서 한 학생의 질문이 여전히 맴돈다. "선생님, 농협도 협동조합인가요?" 오늘 사회적경제를 생각하며 묵자(墨子)의 "겸상애, 교상리(兼相愛 交相利-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득을 나눠라)" 가 생각나는 이유다. 진짜로 사랑하는가? 그러면 서로 이득을 나눠라. 진안을 사랑하는가? 그럼 지역민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라. 우리에게 던진 묵자의 교훈이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신문